

<2016년 2월 10일 수요일말씀>

하나님은 '질 좋은 자'를 찾으신다

본 문 마태복음 12장 35절

『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
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성격과 성품, 생각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말씀의 주제는 ‘**하나님은 질 좋은 자를 찾으신다.**’입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사람마다 <성격>이 다 다릅니다.

그리고 사람마다 <생각>도 다 다릅니다.

<자기 성격>이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.

또 <자기 생각>이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.

◎ 그렇다면, <성격과 생각>을 쪼개서 이야기해 볼까요?

◆ <성격>은 ‘성품’이라고도 하지요?

<성격, 성품>은 ‘마음의 질’을 말합니다.

<땅>도 <밭>도 각각 ‘질’ 이 다릅니다.
기름지기도 하고, 황폐하거나 메마르기도 합니다.
이것이 ‘땅의 질’ 입니다.

이와 같이 <사람의 성격>, 곧 ‘마음의 질’ 도
거칠기도 하고, 온순하기도 하고,
강하기도 하고, 약하기도 하는 등 사람마다 각각입니다.

<땅의 질>과 같이 <마음의 질>이 있는데,
이것이 곧 ‘성격, 성품’ 입니다.

- ◆ <성격, 성품>은 ‘체질’ 에서 오고,
<생각>은 ‘뇌’ 에서 옵니다.
- ◆ <성격, 성품>은 유전자와 연관되어 타고나고,
<생각>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좌우됩니다.

◎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.

- ◆ <성격과 성품>은
처음에는 ‘부모의 유전자’ 로 인해 100% 영향을 받습니다.

육체이니 그러합니다.

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 생명이 태어나는데,
정자와 난자는 <자기>가 만든 것이 아니라 <부모>의 것입니다.

고로 ‘부모의 유전자 영향’ 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

그러다가 <자기>가 점점 배우고 성장하고 행하면서

자기를 개발하고 성격도 성품도 좋게 변화시키게 됩니다.

◆ <생각>은 ‘자기’가 태어나게 합니다.

<생각>도 ‘자기 혼자’ 하기도 하지만,
상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‘자기 생각’이 형성됩니다.

마치 정자와 난자가 하나 되듯,
<자기 생각>과 <상대의 생각>이 하나 되어 형성됩니다.

그래서 어떤 사람은 <자기 생각>에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>을 받아들이고
그 생각과 하나 되어 ‘생각’을 만들고,

어떤 사람은 <땅의 사람들>과 하나 되어 ‘생각’을 만듭니다.

◆ 물건도 보세요. 만드는 대로 ‘모양과 형체’가 형성됩니다.

흙을 가지고 ‘그릇’을 만들면 ‘그릇 모양’이 되고,
나무를 가지고 ‘책상’을 만들면 ‘책상 모양’이 됩니다.

모든 만물도, 물건도 만드는 대로 ‘모양과 형체’가 형성됩니다.

결국 <타고난 성격과 성품>도, <체질>도, <생각>도
어떤 영향을 받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형성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<성격과 성품>, 그리고 <생각>은 매우 중요합니다.

<마음의 질, 생각의 질>에 따라서 ‘삶’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.

◆ 전능하신 하나님은 <성품과 생각>을 보시고, 사람을 쓰십니다.

<거칠고 메마르고 강박한 성품과 생각을 가진 자>는
의로운 데, 좋은 데,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.

<거칠고 메마른 땅>에는 ‘씨’를 뿌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.

고로 <자기 성격과 성품>을 좋게 의롭게 만들고,
<자기 생각>을 최고로 좋게 만들라는 것입니다.

그래야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셨을 때> 잘 들어가고,
<시대 말씀이 들어갔을 때> 잘 받아들이고,
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게 가치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.

◆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,
결국 <자기 성격과 성품과 생각>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.

신앙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의심도 하게 되고,
오해도 하게 되고, 억울함도 당하게 되고, 흔들리기도 하고,
형제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,
육적으로도, 영적으로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

그렇다고 다 형제를 비난하고, 섭리사와 선생을 악평하면서
섭리사를 나가지는 않습니다.

섭리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
오해나 의심, 어려움이나 환난, 억울함이 있을 때
기도하고, 한 번 더 생각하고,
영적으로 판단하고, 때로는 참고 이해하고,
때로는 주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
하나하나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.

그러나 섭리사를 나간 사람들은
참지 못하고 <자기 성격과 생각>대로 해 버렸습니다.

결국 <자기 성격과 생각>이
<자기>를 ‘생명권’에서 내쫓고 죽인 격입니다.

◆ 이 말을 들어 보세요.

사람이 인생을 살면서
누구나 오해도, 억울함도, 어려움도 당합니다.

그때마다 누구나 폭력을 행사하고, 사람에게 해를 주고,
분노를 표출하고,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.

다 <자기 성격과 생각의 질>대로 행하게 됩니다.

그래서 <가인>은 자기 성격대로 ‘아벨’을 죽였고,
<에서>는 자기 성격대로 ‘야곱’을 죽이려 쫓았고,
<사울>은 자기 성격대로 ‘다윗’에게 수많은 해를 주었습니다.

그런 ‘거칠고 메마른 성격과 생각’을 가지고 있으니,
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습니다.

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<사랑>이 ‘목적’이니,
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사랑하며 살기 위해
<인간의 질>을 보고 확인하십니다.

<인간의 질>은 ‘성격과 성품, 생각’에서 나오게 됩니다.

◆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다워도 ‘질’이 안 좋으면, 사랑하지 못합니다.

- ◆ 농부가 <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>이 ‘땅을 사랑하는 것’인데,
씨를 뿌리기 전에는 먼저 ‘토질’을 봅니다.

<토질>이 ‘씨’와 안 맞으면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으니,
원하는 대로 ‘목적’을 이루지 못합니다.

고로 지혜로운 농부는 <토질>이 ‘씨’와 안 맞으면,
아예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.

- ◆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 상대에게 ‘사랑의 씨’를 뿌리기 전에
꼭 <성격과 성품>, 곧 ‘마음의 질, 성질’을 봐야 됩니다.

또 ‘육의 체질, 행실의 질’을 봐야 됩니다.

<성질, 체질, 성품, 성격>이 자기와 안 맞으면
‘사랑의 씨’를 뿌려도 ‘사랑의 목적’을 이룰 수 없습니다.

- ◆ <질>이 멋있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해야 됩니다.
곧 ‘생각의 질, 마음의 질, 체질, 행실의 질’입니다.

<물>도 질이 좋냐, 나쁘냐를 먼저 봅니다.

<물의 질>이 좋아야 먹어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.

<물감>도 질이 좋냐, 나쁘냐를 봅니다.

<물감의 질>이 좋아야 ‘색’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사람도 ‘질’이 좋아야 됩니다.

- ◆ <털옷>도 아름다우나 ‘질’이 안 좋으면, 털이 자꾸 빠집니다.
그러면 어느새 거죽만 남아서 옷이 흉측하게 됩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 고로 ‘질’을 봐야 됩니다.

- ◆ <옷>이 예쁘고 디자인이 좋은데 ‘질’이 안 좋으면 금방 해지고, 변하고, 물이 빠지고, 눈에 확 띄게 낡아집니다.

고로 보기에도 흉하고, 기분도 나쁩니다.

고로 옷이나 물건을 살 때는 ‘품질’을 보는 것입니다.

사 놓고 ‘질’이 안 좋으면 금방 낡거나 고장 나기 때문입니다.

옷도 물건도 ‘질’이 좋아야 하듯이,

사람도 ‘생각의 질, 성질, 체질, 행실의 질’이 좋아야 됩니다.

- ◆ 고로 <겉>만 보지 말고

<성질, 성품, 성격, 생각의 질>을 봐야 됩니다.

사랑하는 자를 택할 때도 <겉>만 보고 택하면 사랑에 실패합니다.

<성질, 성품, 성격, 생각의 질>이 좋은 자를 택해야 됩니다.

세상에 사람들은 많습니다.

그런데 <질 나쁜 사람>을 택하여 같이 살면,

인생이 정말 아깝게 됩니다.

- ◆ 사람들은 ‘자기가 사랑하는 자’를 미쳐서 사랑하지만,
알고 보면 ‘질이 안 좋은 사람’이 있습니다.

<성질, 마음의 질, 생각의 질이 안 좋은 사람>은 잘 변질됩니다.

마치 ‘질 나쁜 털옷’을 입고 다닐수록

자꾸 털이 빠져 흉하게 되듯이

<마음의 질이 나빠 변질된 자> 역시 그러합니다.

- ◆ 칼도 연장도 ‘쇠의 질’ 이 좋아야 잘 끊고 잘 자를 수 있습니다.

그러니 ‘사용하는 사람’ 도 기뻐서 그 연장을 좋아하고
더 귀히 다루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.

하나님 앞에 인생들도 그러합니다.

그래서 하나님은 <성품, 성격, 마음의 질이 좋은 자>가 있는지
그리도 찾으십니다.

<목적>은 ‘사랑하기 위해서’ 입니다.

<육>은 ‘인생 일생’ 동안 사랑하며 살려고 찾으시고,

<영>은 ‘영원히 사랑하며 살려고 찾으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섭리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

섭리사에 ‘백만 명’ 이 넘게 오고 갔습니다.

그들을 보고 겪으면서 봤습니다.

하나님은 ‘보낸 자’ 를 통해 ‘시대 말씀’ 을 주시며,
그 말씀을 행함으로 ‘질’ 이 좋게 만드십니다.

그렇게 <질이 좋게 변화된 자들>은 ‘뜻’ 을 이루는 데 쓰셨습니다.

그러나 변질되어 <질이 안 좋은 자들>은

자기 나쁜 질대로 거기에 맞게 섭리사를 나갔습니다.

- ◆ 저마다 ‘질의 병’ 을 꼭 고쳐야 됩니다.

생각의 질, 마음의 질, 성질, 체질, 행실의 질 등입니다.

<질 안 좋은 자기 성격, 자기 성품, 자기 생각>으로 인해
<자기>에게도 고통을 주고,
<형제들>에게도 고통을 주고,
<자기 혼>에게도 고통을 주고
<자기 영>에게 영원한 지옥 고통을 주었습니다.

<생각의 질, 성질, 체질, 행실의 질>이
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됩니다.

<자기 마음, 생각, 성격, 체질>을 만들지 않고 그냥 쓰면,
평생 영원히 기한도 없이
<자기>로 인해 ‘자신’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.

- ◆ 자기가 ‘질’ 이 안 좋다면,
밤잠도 안 자 가며 필요 없는 일을 싹 자르고 끊고,
<자기 질>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!

기계도 생활용품도 ‘질’ 을 보고 확인하고 사지요?
누가 똑같은 가격을 주고 ‘질 안 좋은 제품’ 을 사서 씁니까?
<질 안 좋은 전자제품>은 바로 망가집니다.
<질 안 좋은 사람>도 그와 같습니다.

- 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
매일 <사람의 마음의 질, 생각의 질, 체질, 행실의 질, 성질>을
저울에 달아 보고 확인하십니다.

그리고 ‘질이 좋은가, 안 좋은가’ 자세히 보고 대하시고,
질에 따라 축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.

<사람의 질>이 좋아야 ‘축복’ 을 주십니다.

- ◆ 섭리사에서도 <질이 안 좋은 사람들>은
순간 꽃피듯 하다가 지고,
기어이 악평과 악한 말을 하면서 나갑니다.

<질이 좋은 자들>은 인생 죽을 때까지 ‘인꽃’ 이 피고,
죽은 후에도 ‘영꽃’ 이 영원히 피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.

<질>이 육도 영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.

그러니 <사람의 질>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

<질>은 ‘마음 바탕, 생각 바탕, 체질 바탕’ 입니다.

- ◆ <월명동 자연성전>에도 ‘수많은 돌들’ 이 왔다 갔습니다.

아무리 형상이 좋고 크고 멋져도 <질 안 좋은 돌들>,
특히 <석회석>은 스스로 깨져서 죽어 나갔습니다.

<질 좋은 돌들>만 남아지고 쌓아져서

저마다 ‘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’ 을 나타내고 있고,
‘하나님의 멋진 구상’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- ◆ 사람은 <뇌의 질, 생각의 질, 마음의 질, 체질>이 좋아야 됩니다.

<자연석>은 ‘돌의 강도와 질, 모양’ 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지요?

<사람>은 ‘몸과 생각의 질, 생각의 형상’ 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고,
‘어떻게 쓰이느냐’ 에 따라 가치가 좌우됩니다.

- ◆ <나무>도 ‘질이 좋고 품종이 좋은 것’ 만 살아서 남아 있고,
‘질 나쁜 것들’ 은 병들어 죽어서 없어졌습니다.

<사람>도 ‘질’ 이 나쁘면 병이 듭니다.

악의 병, 마음의 병, 육체의 질병이 들어서
병과 싸우느라 기쁨과 보람을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.

- ◆ 고로 몸 전체가 ‘질’ 이 좋아야 됩니다.
<생각의 질, 마음의 질, 성질, 체질, 행실의 질>입니다.
모두 ‘질’ 이 좋도록 고치고 만들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은 <질 나쁜 개인>과 <질 나쁜 민족>을 심판하십니다.
<평화롭지 못하고 무력을 행하는 자와 민족>을 심판하십니다.

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
<질 나쁜 자들과 민족>은
예전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.

두렵게 하시고, 정신적 고통과 삶의 고통이 오는 심판을 하십니다.

전능자 하나님께서 **질병**도 막아 주시고, **경제**도 도우시고,
전쟁도 막아 주시며 ‘심판의 뜻’ 을 돌리셨는데
그 후로 서로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니,
서로의 행위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.

이것이 ‘하나의 심판’ 입니다.

- ◆ <심판>은 다른 말로 하면 ‘청소’ 입니다.
고로 심판하면, ‘더러움과 악’ 을 없애니 깨끗해집니다.

<질 안 좋은 자들과 민족>을 심판해야

전 세계가 깨끗해져서 질이 좋게 됩니다.

◆ <하나님의 심판의 날>은

개인에게도, 민족에게도, 각 종교인들에게도 ‘매일’ 있습니다.

질 나쁘면 ‘심판’입니다.

그 심판은 이러합니다.

질이 안 좋아서 스스로 망가지는 심판이며,
질이 안 좋으니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심판이며,
사용하지 않으니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심판입니다.

◆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사는 연고로

<질이 나쁜 자들과 민족>에게

<그 날>이 지진같이, 홍수같이, 태풍같이 임하게 됩니다.

◆ 방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더러우면 ‘방의 질’ 이 안 좋은 것입니다.

그러면 ‘청소’ 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.

이와 같이 <우리의 마음>도 <행실>도 <삶>도 더러우면

<질 나쁜 마음 · 행실 · 삶>이니,

깨끗하도록 ‘심판’ 을 받아야 됩니다.

더러운 방을 엄마가 대신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는 심판을 받기 전에,
자기가 먼저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됩니다.

이와 같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,

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하기입니다.

◆ <병>은 ‘생각의 질’ 과 ‘몸의 질’ 이 나빠질 때 생깁니다.

다 고쳐야 깨끗하게 됩니다.

매일 고치고, 매일 깨끗하게 해야 ‘질’ 이 좋아집니다.

이와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,

매일 의롭게 행하면서 매일 깨끗하게 해야 ‘질’ 이 좋아집니다.

◆ <겉모습>이 아름다운 자라도

<생각과 행실>이 더러우면 ‘질 나쁜 자’ 가 됩니다.

그러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천대받게 되고,

모두 외면하고 싫어합니다.

◆ 하나님도 ‘행위’ 대로 대하십니다.

행위가 더러우면,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.

아까도 말했듯이 그 심판은

질이 나쁘니 자기 스스로 망가지고 고통받는 심판이며,

질이 나쁘니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심판입니다.

◆ <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법을 벗어난 것>이 ‘죄’ 요,
그런 자를 ‘질 나쁜 자’ 로 보고 심판하십니다.

◆ <무지>로 인해 ‘질’ 이 나빠집니다.

그래서 하나님은 ‘보낸 자’ 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.

가르쳐 줬는데도 안 고치면,

보낸 자는 전능자와 의논하여 성령과 함께 행위대로 심판합니다.

◆ <육이 죽은 자>는 끝나서 기억이 안 나듯,

<영이 사망 지옥에 간 자>는 ‘죽은 격’ 이 되어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기억하지 않고 끝내 버리십니다.

<영을 구원하고 사는 자>만 기억하시고
그 육과 ‘육신 평생’ 기뻐하며 같이 사시고,
그 영과 ‘영원히’ 기뻐하며 같이 사십니다.

- ◆ 하나님은 ‘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’ ,
곧 ‘선과 악’ 을 ‘하늘과 땅’ 과 같이 대하시고 통치하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질이 나쁘면, <물건>도 안 삽니다. <사람>도 안 씁니다.

<사람의 질>은 ‘생각의 질, 행실의 질, 체질, 성질’ 을 말합니다.

- ◆ 고로 ‘자신의 질’ 이 나쁘면,
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행함으로 변화되어
새롭게 좋게 만들기입니다.

- ◆ <휴거>도 그러합니다.

자기가 질이 나빠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좋게 변화되면
<육>은 ‘땅’ 에서 휴거의 삶을 살게 되고,
<영>은 ‘천국 황금성’ 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.

- ◆ <자기의 질, 상대의 질>을 연구해야 됩니다.
생각의 질, 마음의 질, 체질, 성질, 행실의 질 등입니다.

<질>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‘매일 좋게 만들기’ 입니다.

- ◆ <몸>도 체질이 허약하고 강하지 못하면, 제대로 못 씹니다.
매일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‘강하게 만들기’입니다.

- ◆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<약하게 태어난 몸>도, <체질>도
자꾸 노력하면서 만들면, 좋게 변화되어 좋아집니다.

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<강하게 태어난 몸>도, <체질>도
계속 관리하지 않으면, 변질되어 약해지고 나빠집니다.

<생각>도 <성품>도 그러합니다.

안 좋게 태어났어도 - 자꾸 고치고 만들면 좋게 변화되고,
좋게 태어났어도 - 방치하면 안 좋게 변질됩니다.

<몸>도, <체질>도, <생각>도, <성품>도
관리하기입니다. 만들기입니다. 그리함으로 좋게 변화되기입니다.

- ◆ 만사의 모든 이치는 똑같습니다.

만사의 모든 이치는 똑같다? -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?

가령 ‘과일’을 보세요.

1년 내내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과일은 ‘그 과일의 철 한때’ 먹을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<인생>도 ‘그 인생 청춘 한때’입니다.

그때 실컷 못 쓰면, 과일이 제철 지나면 못 먹고 끝나듯 끝납니다.

만사의 모든 이치는 동일합니다.

인생, <자기 때>를 알고, <청춘의 한때>를 알고,

그때 실컷 자기를 고치고 쓰면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한 가지만 더 핵심적으로 말씀하고,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

◆ <자막 준비>

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불>은 ‘불’ 이 조정하면 안 된다.

<불>은 ‘불의 대상, 곧 불을 쓰는 자’ 가 조종해야 된다.”

하셨습니다.

<불>이 무엇입니까? 곧 ‘태양’ 입니다.

◆ 그래서

“<불>은 ‘불’ 이 조정하면 안 된다.

<불>은 ‘불의 대상, 불을 쓰는 자’ 가 조종해야 된다.”

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

“<태양>이 지구같이 돌고,

<지구>가 태양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.” 함입니다.

◆ <불>, 곧 <태양>은 누구입니까?

-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’ 이십니다.

<불의 대상, 불을 쓰는 자>가 누구이며, <지구>가 누구입니까?

- ‘우리 인간들’ 입니다.

곧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

<우리>가 조정하면서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.

◆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,

<인간>이 ‘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위’로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가까이하고 잡도록 창조하셨습니다.

그래야 본인이 가까이하니 느끼고, 본인이 말하니 느끼고,

본인이 생각하니 느끼고, 본인이 행하니 느끼게 됩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가 가까이하고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셔도

<본인>이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.

고로 <지구>가 <태양> 주변을 돌면서

태양을 느끼고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듯이,

<본인>이 <성삼위>를 가까이하고 잡고 살면서

<본인>이 생각하고 행하면서 <성삼위>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.

◎ 교역자들이 1분 정도 한마디 더 해 주고 말씀 마친다. 꼭 하기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